

## 알로에에 의해 유발된 급성 간질성신염 1예

가천의과대학고길병원 신장내과, 병리과\*

조용찬 · 이현희 · 이준승 · 정우경 · 정재걸\*

급성 간질성신염은 약물이나 감염성 질환 외에도 전신질환 또는 사구체신염 등에서 관찰될 수 있다. 약물에 의한 간질성신염은 NSAID계나 페니실린 항생제에 의한 것이 잘 알려져 있고 한약이나 일부 보완대체 요법으로 사용되는 보조 식품 및 기능성 식품들에 의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알로에에 의한 급성신부전은 비의료인에 의해 전통적인 약초 요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급성신부전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장의 염증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은 aloins과 aloesin, aloresin A, B 등이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변비 및 면역력 강화 목적으로 다량의 알로에 제품을 복용 후 급성 간질성신염이 발생한 예를 경험 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증례** : 66세 남자 환자가 내원 10주 전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알로에 분말제품 5종류를 하루 3회씩 복용하였다. 복용 후 6주 정도 경과하면서 전신 쇠약감과 체중이 6-7 kg 감소하였고 고질소혈증 소견을 보여 입원하였다. 혈압은 120/90 mmHg, 호흡수 16회/분, 맥박수 80회/분, 체온은 37.1°C였다. 피부에 발진은 없었고 이학적 소견에서 부종 등 기타 특이 소견은 없었다. 말초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8,440/mm<sup>3</sup> (중성구 62.8%, 임파구 24.8%, 단핵구 5.8%, 호산구 5.0%), 혈색소 11.3 gm/dL, 혈소판 358,000/mm<sup>3</sup>이었고, 적혈구 침강속도는 112 mm/hr, CRP는 2.17 gm/dL였다. Bilirubin 0.6 mg/dL, AST/ALT 14/8 IU/L, Na/K/Cl 137/4.2/102 mEq/L, BUN/Cr/Glucose 58/10/98 mg/dL, Protein/Albumin 8/3.7 g/dL였다. 소변 검사에서 요당 3+, 잠혈 1+, 요단백 2+이었고 고배율 시야에서 RBC 5-7, WBC 15-20였다. ANCA/FANA는 음성이었고 C3, Ig G, Ig A는 약간 증가되어 있었으며 C4와 Ig M은 정상이었다. 복부 초음파에서 신장 크기는 정상이었고 기타 특이 소견은 없었다. 입원 2일에 시행한 신장 조직 검사에서 급성 간질성신염으로 진단되어 복용하던 알로에 제제를 중단하였으며 입원 3일부터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1 mg/kg) 시작하였다. 치료 후 1주 정도 경과하면서 전신 쇠약감과 오심 증상은 호전되었으며 혈중 크레아티닌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한달 후에는 1.8 mg/dL로 호전을 보여 현재는 외래에서 관찰 중이다. 알로에에는 급성 간질성신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량을 복용하거나 과민한 환자에서는 주의를 요한다.